

# 남도의병역사공원 공모 돌연 연기

### 전남도 “콘텐츠 부족·국비확보 어려워 잠정 보류” 유치전 나선 시·군 “미숙한 행정으로 헛물만 켜”

전남도가 남도의병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돌연 연기해 유치경쟁에 뛰어 들었던 일선 자치단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9일 도에 따르면 이달말 사업대상지 선정을 목표로 추진한 남도의병 역사공원 조성사업 공모가 무기한 연기됐다.

총 사업비 480억원에 부지면적만 10만여평(33만㎡)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이 사업은 호남지역 의병 역사를 재조명하자는 취지로 2022년

까지 기념관과 공원, 체험관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전남 도내 각 시·군에서는 이번 역사공원 유치를 위해 결의문 채택과 유치 서명식 등을 펼치며 12개 자치단체가 경합을 벌였다.

하지만 전남도는 최근 콘텐츠 미흡과 국비 확보 어려움을 이유로 남도의병 역사공원 공모를 잠정 보류했다.

기본 콘텐츠 구성이 전무한 상태에서 부지 선정에만 올인한다는 안팎의 지적에 결국 사업을 중단한 것이다.

도는 그동안 역사공원에 대해 기존 역사기념관이라는 무겁고 정형화된 틀을 벗어나 누구나 찾아와 보고, 듣고, 체험하며 쉴 수 있는 친근한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막연한 계획만 제시한 상태다.

특히 용역을 맡은 광주전남연구원 또한 입지선정 평가 기준에 집중돼 공원조성과 관련된 콘텐츠 구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당초 사업비 480억원도 추정치로 구체적 비용은 산정되지 않았다. 예산 확보 방안도 국비 50%와 도비 50%로 추진할 예정이나, 국비 확보 방안은 없는 상태다.

공모가 중단되자 유치전에 뛰어 들었던 자치단체들은 허탈한 모습이다.

A자치단체는 “잠정 중단한다는 말에 맥이 빠진다”며 “대규모 군민 결의대회까지 개최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B자치단체도 “구체적으로 가닥이 잡힌 다음에 공모사업을 했어도 될 텐데 큰집에서 하는 일이라 말도 못하고 자치단체간 과열만 부추긴 꼴이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의병역사공원 공모사업의 콘텐츠 구성이 먼저 확립되어야 한다는 여러 지적에 결국 중단시켰다”며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정치권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굵직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캔맥주 흥친 러시아인 노숙자 불구속

광주 서부경찰서는 편의점에서 상습적으로 캔맥주를 흥친 혐의(절도)로 러시아 국적 A씨(38)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노숙을 하던 A씨는 9일부터 12일 사이 동천동 한 편의점에서 5차례에 걸쳐 캔맥주 8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지난 12일 입건됐다.

A씨는 7월 말쯤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을 구하기 위해 한국에 왔고 직업소개소를 통해 한 두 번 일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등의 문제로 일이 구해지지 않자 노숙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편의점 점주에게 붙잡힌 A씨는 CCTV 분석 도중 앞서 추가 범행이 들롱 4건의 여죄가 추가됐다.

경찰은 10월까지 관광비자가 유효한 A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은 아닌 점 등으로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사약에 쓰던 독초 끊어 마신 80대 할머니 숨져

민간요법으로 독초를 끊어 마신 80대 노인이 숨졌다.

19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오후 7시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A씨(81·여)가 독초인 ‘초오’ (草烏)를 달여 먹었다가 어지럼증과 구토 등 중독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조사 결과 허리디스크 수술 후 극심한 허리 통증에 시달리던 A씨는 시장에서 초오를 사와 몇차례 끓여 마셨다가 독초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족들이 독초를 이용한 민간요법을 만류할 것으로 염려돼 평소 가족들 몰래 초오를 끊어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앞서 몇차례 초오를 끊어 마셨지만 아무 이상이 없자 점차 초오를 늘려 복용하다 중독 증상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시대에 사약재료로 사용했다는 ‘초오’는 뿌리에 강한 독이 있어 아주 소량으로 먹을 때는 신경통과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독성이 강한 만큼 식품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고 마비, 어지럼증, 호흡곤란, 중독 증상 등 부작용이 심해 의학계에서도 사용을 자제하는 약재다.

## 보이스피싱 사기가담 50대 여성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19일 금융기업을 사칭해 피해자 4명에게 편취한 50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사기)로 A씨(53·여)를 불집아 조사 중이다.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수백만 원을 A씨에게 전달한 인출책 B씨(43)도 함께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원주, 인천, 울산에 있는 피해자 4명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속여 가로챈 돈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은 1.2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3금융권을 사칭해 수백만 원의 수수료를 입금하면 원하는 수천만 원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서울에서 1번, 광주에서 4번 인출했고 A씨가 돈을 수거해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댄싱 사이트에서 ‘고액 알바’ 광고를 본 후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6일 수거책 A씨를 긴급체포했고 A씨 범죄에 연루된 B씨도 추가 입건했다.

## 별거 중인 아내 찾아가 흥기로 찢른 60대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하려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A씨(6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8일 오후 8시35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음식점에서 아내 B씨(53)를 흥기로 찢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살해하기 위해 흥기를 준비한 뒤 B씨가 일하는 식당으로 찾아가다.

B씨는 A씨가 흥기로 위협하자 적극 방어했고 이 과정에서 팔에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식당 직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 광주 약물중독 치료 환자 최근 5년 39% ↑

광주에서 약물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 수가 최근 5년간 3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건보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물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의 수는 7만7061명에 달했다.

이중 광주는 1772명, 전남은 2693명으로 집계됐다.

광주의 경우 2014년 330명, 2015년 309명, 2016년 327명, 2017년 347명, 2018년 459명 등 1772명으로 확인됐다.

광주는 약물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의 수가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4위로 낮았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약물중독으로 치료받은 환자 수 증가율은 39.1%로, 증감률은 대전의 79.8%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남은 약물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2014년 584명, 2015년 589명, 2016년 564명, 2017년 493명, 2018년 463명 등 최근 5년 동안 20.7%가 감소한 것.

최 의원은 “약물중독은 마약류 뿐만 아니라 식욕억제제, 수면제, 해열제와 같이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의약품에 오남용할 경우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학 끝, '새로운 학기'** 19일 여름방학을 끝내고 개학을 한 울산시 남구 여천초등학교 4학년 1반 학생들이 새로받은 교과서를 들여다보고 있다.

## 광주 시민단체, '부실시공 정황' 한빛원전 폐쇄 비상회의 출범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한빛원전 폐쇄를 위한 범시민 비상회의를 출범시킨다.

19일 해있는세상광주전남행동에 따르면 광주지역 종교계와 노동, 여성, 탈핵단체 등은 20일 오후 2시 광주 YMCA 무진관에서 영광 핵발전소 1호기, 3호기, 4호기 폐쇄를 위한 범시민 비상회의 (이하 한빛 범시민 비상회의) 발대식을 갖는다.

발대식은 한빛원전에 관한 영상 상영과 참석자 소개, 여는말, 한빛원전 상황발표, 선언문 낭독, 향후활동계획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비상회의는 “한빛1호기 원자로 출력 급상승, 한빛 3, 4호기 200여개 공극 발견과 157cm 대형 공극, 격납건물 철판부식, 최근 10개월간 발생한 6차례의 화재 사고 등 연일 심각한 사건과 사고, 부실 정황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정밀조사와 시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개선책이 아닌 핵발

전소 가동을 우선하는 결과들을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빛1호기는 두 달 만에 조사와 정비를 마무리하고 9월 가동을 발표했고, 한빛3, 4호기도 조기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상회의는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발전사업자의 이익을 우선하며 노후화되고 부실이 명명백백한 핵발전소 가동을 저지하기 위해 한빛 범시민 비상회의”를 결성한다”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 순천시의회 KBS 순천방송국 폐쇄 철회 촉구

순천시의회(의장 서정진)가 최근 KBS가 발표한 'KBS 비상경영계획 2019'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순천시의회는 최근 순천시청 앞에서 KBS 순천방송국 폐쇄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KBS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KBS 지역방송국 구조 조정안은 지역의

다양한 철학이 담긴 목소리를 배제하고 지역의 연로를 차단하는 행태”라며 깊은 걱정과 우려를 표했다. 또 시의회는 “KBS 순천방송국은 전남 동부권에서 연간 100억 원 가량의 수신료를 받아 수십억의 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BS가 경영손실이 난 것은 이 수신료가 본사의 경영 손실을 메우기 위해 지금까지 쓰여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